

유란시아서

<< [제 176 편](#) | [부분](#) | [내용](#) | [제 178 편](#) >>

제 177 편

수요일, 쉬는 날

177:0.1 (1920.1)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로 시달리지 않을 때, **예수**와 사도들은 수요일마다 수고를 그만두고 쉬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들은 특별한 이번 수요일에 여느 때보다 얼마큼 늦게 아침을 먹었고, 캠프는 불길한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아침 식사 of 처음 절반 동안 거의 아무 말이 없었다. 마침내 **예수**가 말했다: “너희가 오늘 쉬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온 뒤에 일어난 모든 일을 천천히 생각해보고,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일을 명상해보라, 이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일렀노라. 진실이 너희 생활에 거하고 너희가 자비 속에 나날이 자라도록 하여라.”

177:0.2 (1920.2) 아침 식사 뒤에, 주는 그날 하루, 자리를 비울 생각이 있다고 **안드레**에게 알렸고, 어떤 경우에도 그들이 **예루살렘** 문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사도들이 각자가 택하는 대로 시간 보내기를 허락할 것을 제안했다.

177:0.3 (1920.3) **예수**가 산으로 혼자 가려고 준비했을 때, **다윗 세베대**는 그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주여, **바리새**인과 권력자들이 당신을 죽이려 하는 줄 당신이 잘 아시며, 그래도 당신은 산으로 혼자 가려고

준비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그러하니 아무런 해가 당신에게 닥치지 않도록 처리하려고 잘 준비된 세 사람을 당신과 함께 보내리이다.” **예수**는 잘 무장이 되어 있고 튼튼한 세 **갈릴리** 사람을 훑어보고 **다윗**에게 말했다: “너는 좋은 뜻을 가졌으나, **사람의 아들이** 자신을 방어할 사람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음을 이해하지 못하니, 네가 잘못하는도다. 내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여 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될 그때까지, 아무도 내게 손대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되느니라.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나는 혼자 가기를 바라노라.”

177:0.4 (1920.4) 이 말씀을 듣자, **다윗**과 무장(武裝)한 경비원들은 물러났다. 그러나 **예수**가 혼자서 발걸음을 떼자, **요한 마가**가 먹을 것과 물을 담은 작은 바구니를 가지고 앞으로 나섰고, 그가 하루 종일 떠나 있을 생각이라면, 배가 고프게 될지 모른다고 넌지시 비추었다. 주는 **요한**에게 빙그레 웃으며, 바구니를 쥐려고 손을 뻗었다.

1. 하루를 혼자 하나님과

177:1.1 (1920.5) **예수**가 **요한**의 손에서 점심 바구니를 쥐려 하자, 그 젊은이는 나서서 말했다. “하지만 주여, 바구니를 내려놓고, 몸을 돌이켜 기도하고 바구니 없이 계속해도 되나이다. 게다가, 점심을 가지고 내가 따라간다면, 당신은 예배하기에 더욱 홀가분할 터이고, 분명히 나는 조용히 있겠나이다. 당신에게 아무 말도 묻지 않고 당신 혼자서 기도하러 따로 가실 때, 바구니 옆에 머무르리이다.”

177:1.2 (1920.6) 그 대답성은 가까이서 듣던 사람들 가운데 더러를 놀라게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은 대담하게 그 바구니를 계속 붙들고

있었다. **요한**과 **예수** 둘이서 그 바구니를 붙들고 거기에 서 있었다. 이내 주는 손을 놓고, 소년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네가 마음을 다하여 나와 함께 몹시 가고 싶어 하니, 너를 물리치지 못하리라. 우리끼리 떠나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리라. 마음 속에 무슨 질문이 생겨도 내게 물어도 좋고,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위안할 것이라. 너는 점심을 가지고 떠나도 좋으니라. 그리고 네가 지칠 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를 계속 따라오라.”

177:1.3 (1921.1) **예수**는 해가 진 뒤까지 그날 저녁에 캠프로 돌아오지 않았다. 진실에 갈급한 이 젊은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파라다이스 아버지**와 이야기하면서, 주는 땅에서 마지막으로 조용한 이날을 지냈다. 이 사건은 하늘에서 “한 젊은이가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낸 날”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경우는 언제까지나 **창조자**가 사람과 기꺼이 친교하는 태도를 본보기로 보여준다. 소년조차도, 마음의 소망이 정말로 지극할 때, 한 우주의 **하나님**의 눈길을 끌고 사랑으로 동반하심을 누릴 수 있다. 산에서 **하나님**과 혼자 지내는 잊을 수 없는 환희를, 그것도 하루 종일,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이 수요일에 **유대** 땅의 산에서 **요한 마가**가 겪은 독특한 체험이 그러했다.

177:1.4 (1921.2) **예수**는 **요한**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일에 대하여 거리낌없이 이야기했다. **요한**은 그가 사도들 중에 하나가 될 만큼 나이 들지 않아서 얼마나 서운했는가 **예수**에게 말했다. 그리고 **페니키아**로 간 여행을 제외하고, **예리고** 가까이 **요단** 강 여울에서 그들이 처음 전도할 때부터 줄곧 따라다니도록 허락받은 것을 대단히 고맙게 여긴다고 말했다. **예수**는 다가오는 사건들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 소년에게 경고하고, 그가 살아서 하늘나라의 막강한 사자가 되리라고 그에게 확신을 주었다.

177:1.5 (1921.3) **요한 마가**는 산에서 이날 **예수**와 함께 지냈던 기억으로 기쁨에 떨어졌지만, **마가**는 그들이 **겻세마네** 캠프로 막 돌아오려 할 때 말씀한 주의 마지막 훈계를 결코 잊지 않았다. 이때 주는 말했다: “자, **요한아**,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구나, 정말로 쉬는 날이었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른 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하여라.” **요한 마가**는 그가 산에서 **예수**와 함께 지낸 이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결코 밝히지 않았다.

177:1.6 (1921.4) **예수**가 땅에서 보낸 생애의 남은 몇 시간을 통해서, **요한 마가**는 주가 눈앞에서 오래 사라지도록 버려 두지 않았다. 그 소년은 언제나 가까이서 숨어 있었고, **예수**가 잘 때만 눈을 붙였다.

2. 어릴 때의 가정 생활

177:2.1 (1921.5) **요한 마가**와 이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예수**는 그들의 어린 시절과 그후 소년기의 체험을 비교하느라고 상당히 시간을 보냈다. **요한**의 부모가 **예수**의 부모보다 이 세상의 재물을 더 많이 소유했어도, 그들의 소년기에 아주 비슷한 체험이 많이 있었다. **예수**는 여러 가지를 말씀했고, 이것은 **요한**이 부모와 다른 식구들을 더 이해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가 “하늘나라의 막강한 사자”임이 입증될 것을 주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소년이 물었을 때, **예수**는 말했다:

177:2.2 (1921.6) “네가 하늘나라 복음에 충실함이 입증될 것을 내가 아노니, 너의 현재 믿음과 사랑이 집에서 네 몫대로 받은 그러한 초기 훈련에 바탕을 두었을 때, 내가 이러한 자질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라. 너는 부모가 서로에게 진지한 애정을 품은 집에서 생긴

결과이며, 따라서 자신을 중요시하는 개념을 해롭게 높일 만큼 지나치게 사랑을 받지 않았느니라. 너의 자신감과 충성심이 서로 충돌하도록 너희 부모가 사랑 없이 조종한 결과로 네 성격이 비뚤어지지도 않았느니라. 칭찬할 자신감을 보장하고 정상적 안정감을 촉진하는 부모의 사랑을 네가 누려 왔느니라. 그러나 네 부모가 사랑만 아니라 지혜를 가졌으므로, 너는 또한 운이 좋았구나. 돈으로 살 수 있는 대부분의 형태의 방종과 많은 사치품을 허락하지 않도록 부모가 지혜롭게 행하였고, 한편 네 부모는 이웃 놀이 친구들과 함께 너를 회당 학교로 보냈으며, 또한 네가 고유한 체험을 가지도록 허락함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배우라고 너를 북돋았느니라. 너는 **요단** 강으로 왔고, 거기서 젊은 네 친구 **아모스**와 함께, 우리는 전도하고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를 주었느니라. 너희 둘이 우리와 함께 가기를 바랐느니라. 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네 부모는 찬성하고 **아모스**의 부모는 반대하였느니라. 저희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네가 누려왔던 복된 체험을, 아니 오늘 네가 맛보는 그런 체험조차 그가 못 가지게 하였느니라. 집에서 도망치면 **아모스**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했더라면 그는 사랑에 상처를 입히고 충성심을 희생하였으리라. 그러한 과정이 지혜롭다 하더라도, 체험과 독립과 자유를 얻기 위하여 끔찍한 값을 치렀으리라. 너희 부모처럼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들이 네 나이까지 자랐을 때 독립심을 기르고 사람을 북돋는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사랑에 상처를 입히거나 충성심을 억누를 필요가 없도록 처리하느니라.

177:2.3 (1922.1) “**요한**아, 전적으로 지혜로운 존재들이 사랑을 주었을 때 그 사랑은 우주에서 최상의 현실이지만, 필사 부모의 체험에서 나타나다시피, 사랑은 위험하고 때때로 반(半)이기적 버릇이라. 네가

장가들고 네 아이들을 기를 때, 지혜의 훈계를 받고 머리를 써서 아이들을 사랑하도록 하여라.

177:2.4 (1922.2) “젊은 네 친구 **아모스**는 너와 똑같이 이 하늘나라 복음을 믿지만, 나는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고, 앞날에 그가 무슨 일을 할지 확신하지 못하노라. 어릴 때 그의 가정 생활은 온전히 믿을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었느니라. **아모스**는 사도들 가운데 정상이고 사랑이 가득하고 지혜로운 가정 훈련을 받지 못한 한 사도와 많이 비슷하니라. 네가 처음 8년을 정상이고 규율이 잘 선 집에서 보냈은즉, 너의 여생(餘生) 전체는 더욱 행복하고 믿을 만하리라. 사랑이 우선하고 지혜가 다스리는 집에서 자랐으므로 너는 튼튼하고 반듯한 인품을 가졌느니라. 그러한 소년기 훈련이 낳는 종류의 충성심은, 네가 일단 시작한 길을 마칠 것이라고 내게 확신을 주느니라.”

177:2.5 (1922.3) 한 시간이 넘도록 **예수**와 **요한**은 가정 생활에 대하여 이 토론을 계속하였다. 어린아이가 모든 지적 · 사회적 · 도덕적인 것, 아니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그 초기 개념을 얻는 데 어떻게 부모에게, 그리고 관련된 가정 생활에 의존하는가, 주는 계속 **요한**에게 설명했다. 이것은 가족이 인간 관계나 신다운 관계에 대하여 처음에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린아이에게 대표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어머니의 보살핌으로부터 우주에 대한 첫 인상(印象)을 얻어야 한다. 아이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첫 관념을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 뒤에 어린아이의 생활은, 가정의 이 사회적 · 영적 관계에 조건을 받고, 어릴 때의 정신 및 감정 생활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쉽거나 어렵게 된다. 한 인간의 여생 전부가

처음 몇 년 존재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

177:2.6 (1922.4) 아버지와 자식 관계에 바탕을 둔, **예수**가 가르친 복음은, 현대의 문명화된 민족들의 가정 생활이 사랑을 더 품고 지혜를 더 품을 때가 오기까지, 도저히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우리는 진지하게 믿는다. 20세기의 부모는 가정을 개선하고 가정 생활을 고상하게 만들기 위하여 많은 지식과 늘어난 진실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갈릴리**에서 **예수**의 가정과 **유대**에서 **요한 마가**의 집만큼, 소년과 소녀를 기르기에 좋은 장소인 현대 가정이 극히 드문 것이 아직도 사실이다. 하지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즉시 가정 생활의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 지혜로운 가정의 애정 생활, 그리고 참된 종교에 충실히 헌신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가정 생활은 종교를 높이고, 진정한 종교는 반드시 가정을 영화롭게 한다.

177:2.7 (1923.1) 이러한 옛 **유대인** 가정에서 발육을 저해(沮害)하던 많은 불쾌한 영향, 그리고 사람을 속박하는 기타 특징이, 잘 다스려지는 많은 현대 가정에서 거의 없어진 것이 참말이다. 정말로, 계획하지 않은 자유가 전보다 많고 개인적 자유는 훨씬 더 많지만, 이 자유는 사랑으로 자제되거나 충성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요, 총명하게 지혜로운 훈련으로 지도를 받지도 않는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어린아이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는 한, 아버지라는 낱말이 성장하는 모든 어린아이의 머리와 가슴 속에서 가치 있게 간직되도록, 살고 가정을 다스릴 엄청난 책임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에게 지워진다.

3. 캠프에서 하루

177:3.1 (1923.2) 사도들은 **올리브** 산에서 이리저리 거닐고, 같이 야영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날의 대부분을 보냈지만, 이른 오후가 되자 **예수**가 돌아오는 것을 무척 보고 싶어 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가 안전한가 더욱 걱정이 되었다. 그들은 **예수**가 계시지 않아서 말할 수 없이 외롭게 느꼈다. 주가 산에서, 심부름하는 소년 하나만 데리고, 혼자 훌쩍 떠나게 버려 두었어야 하는가, 하루 내내 많은 논란이 있었다. 비록 아무도 터놓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않았어도, **가롯 유다**를 빼고 자기가 **요한 마가**의 처지에 있었으면 하고 바라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177:3.2 (1923.3) 오후 중반쯤 되어 **나다니엘**은 “최고의 소망”에 대하여 여섯 명쯤 되는 사도들과 그만큼 되는 제자들에게 연설했는데, 그 연설의 끝은 이러했다: “우리 대부분에게 잘못된 점은 우리가 정성이 부족한 것이라. 주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는 주를 사랑하지 않느니라. **요한 마가**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가기를 바랐더라면, 주는 분명히 우리 모두를 데리고 갔으리라. 우리가 구경하는 동안, 그 소년은 주께 다가가서 바구니를 내밀었지만, 주가 쥐었을 때 그 소년은 놓으려 하지 않았는지라. 그래서 주는 우리를 여기 두고, 바구니도 가지고 소년도 데리고 산으로 훌쩍 떠나가셨느니라.”

177:3.3 (1923.4) 4시쯤에, 주자들이 **다윗 세베대**에게, **벧세다**에 있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로부터, 소식을 가지고 왔다. 며칠 전에 **다윗**은 주사제와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다. **다윗**은 그들이 주를 죽이기로 결의가 굳은 것을 알았고, **예수**가 자신을 구하려고 신으로서 가진 힘을 쓰거나 추종자들이 그를 방어하려고 무력(武力)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했다. 이런 결론에 이르고 나서, 그는 때를 놓치지 않고 사자 하나를 그의 어머니에게 급히 보내서, 어머니가 당장에 **예루살렘**으로 오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집안의 식구를 다 데려오라고 재촉했다.

177:3.4 (1923.5) **다윗**의 어머니는 아들이 요청한 대로 했고, 이제 주자(走者)들이 그의 어머니와 **예수**의 가족 전부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있으며, 이튿날 언젠가 늦게, 아니면 그 다음 날 아침 아주 일찍 도착하리라는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돌아왔다. **다윗**이 자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그 문제를 혼자 비밀에 붙이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의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177:3.5 (1924.1) 정오가 조금 지난 뒤에,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서 **예수**와 열두 사도와 만난 적이 있는 **그리스인**이 스무 명 넘게 캠프에 도착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과 회담하느라고 몇 시간을 보냈다. 이 **그리스인**들, 적어도 그들 가운데 더러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단**에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늘나라 지식 면에 상당히 진보되어 있었다.

177:3.6 (1924.2) 그날 저녁에, 캠프로 돌아온 뒤에, **예수**는 **그리스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칠십인을 세운 것처럼 이 **그리스인** 스무 명을 임명하는 것이 사도들과 많은 주요 제자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으리라는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177:3.7 (1924.3) 이 모든 것이 캠프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주사제(主司祭)와 장로들은 **예수**가 군중에게

연설하려고 돌아오지 않은 것에 놀랐다. 그 전날, 그가 성전을 떠날 때, “내가 너희 집을 황폐한 채로 버려두노라” 말한 것이 참말이었다. 그러나 군중이 우호적으로 대하는 가운데 쌓았던 크게 유리한 형편을 그가 어째서 기꺼이 포기하려고 하는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소동을 일으킬까 두려웠는데, 군중에게 주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모든 타당한 방법으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의 권한에 순응하라는 훈계였다. 그러나 그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동시에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완성하는 동안, 그 도시에서는 바쁜 날이었다.

177:3.8 (1924.4) 많지 않은 사람이 캠프로 왔는데, 그 캠프를 세운 것은 밤마다 **베다니**로 나가는 대신에 거기서 **예수**가 머물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모두 비밀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4. 유다와 주사제들

177:4.1 (1924.5) **예수**와 **요한 마가**가 캠프를 떠난 뒤에 얼마 있다가, **가롯 유다**는 형제들 사이에서 사라졌고, 오후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혼란에 빠지고 불평을 품은 이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삼가 들어가지 말라고 주가 특별히 요청했는데도, 대사제^[172]**가야바**의 집에서 **예수**의 적들과 약속을 지키려고 서둘러 갔다. 이것은 **산헤드린**의 비공식 회의였고, 그날 아침에 10시 조금 지나서 하도록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예수**를 고발하는 데 쓰일 죄목들의 성질을 의논하고, 그들이 **예수**에게 이미 내린 사형 선고에 필요한, 국가의 확인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로마** 당국 앞으로 **예수**를 끌고 오는 데 어떤 과정을 이용할 것인가 결정하려고 이 회의가 소집되었다.

177:4.2 (1924.6) 전날에 **유다**는 친척들 중 몇 사람에게, 그리고 아버지 가족 중에 어떤 **사두개**인 친구들에게, **예수**가 좋은 의도를 가진 몽상가요 이상주의자이기는 해도,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털어놓았다. **유다**는 그가 그 운동 전체에서 품위 있게 물러나는 어떤 길을 찾아내기를 몹시 바란다고 진술했다. 친구들은 그의 사퇴가 큰 사건으로서 **유대** 권력자들의 갈채를 받으리라, 무엇을 그에게 해주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치켜세우며 확신을 주었다. 그가 **산헤드린**으로부터 당장에 큰 영예를 받으리라, 그가 뜻은 좋았어도, “배우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과 유감스러운 관계”를 가졌던 낙인(烙印)을 드디어 지워버릴 처지에 있으리라고 그가 믿게 만들었다.

177:4.3 (1924.7) **유다**는 주의 막강한 일들이 악마 왕의 힘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진실로 믿을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가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그의 권능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확신했다. **예수**가 **유대** 권력자들이 그를 죽이도록 버려둘 것이라고 마침내 **유다**는 확신하였고, 그는 실패한 운동과 한 편이었다는 창피스러운 생각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주의 든든한 인격과 그 당당하고 자비로운 정신, 날카로운 정신을 속속들이 이해하였다. 그래도, **예수**가 좋은 뜻을 가진 광신자이지만 아마도 정말로 멀쩡한 정신이 아니었다, 언제나 이상하고 오해받는 사람으로 보였다고, 친척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제안한 것을 얼마큼 생각해 보면서 **유다**는 마음이 기뻐다.

177:4.4 (1925.1) 이제, 전과 달리, **유다**는 **예수**가 그에게 크게 명예로운 자리를 한 번도 배당해 주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자신이 분개하게 되는

것을 알아차렸다. 여태까지 사도들의 회계(會計)라는 명예를 고맙게 여겼지만, 이제 그의 진가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비로소 느꼈다. 그는 **예수**와 가까운 관계를 가지는 영예를 **베드로 · 야고보 · 요한**이 받은 것에 갑자기 분개심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랐고, 이때 대사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배반하려는 어떤 생각에 관심이 있기보다 **베드로 · 야고보 · 요한**에게 앙갚음을 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로 그때, 새롭고 지배하는 생각이, 의식하는 그의 머리 속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명예를 얻는 데 착수했고, 이것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실망을 안겨주었던 자들에게 복수(復讐)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군다나 좋다. 혼란 · 자만심 · 절망 · 결심이 끔찍하게 뭉쳐서 그를 짊어 붙들었다. 그래서 그때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는 일을 주선하려고 **가야바**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고, 이는 돈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177:4.5 (1925.2) **가야바**의 집으로 다가가면서, **유다**는 **예수**와 동료 사도들을 저버리겠다고 마침내 결심하였다. 이렇게 하늘나라 운동을 저버리기로 마음먹고 나서, 그가 처음에 **예수**와 하늘나라의 새 복음 편을 들었을 때, 언젠가 자기가 누릴 것이라 생각했던 명예와 영광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자신을 위하여 확보하려고 굳게 결심했다. 사도들이 모두 한때 **유다**와 함께 이런 포부를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진실 찬미하기를 배우고, 적어도 **유다**보다 더, **예수** 사랑하는 것을 배웠다.

177:4.6 (1925.3) 그의 사촌이 배반자를 **가야바**와 **유대** 권력자들에게 인사시켰고, 사촌은 **유다**가 **예수**의 미묘한 가르침에 자신이 미혹된 잘못을 발견했으므로, 그가 그 **갈릴리** 사람과 가졌던 관계를 대중 앞에서 정식으로 부인(否認)하기를 바란다고, 동시에 **유대** 형제들의

신뢰와 친교의 회복을 요청하려고 그 장소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유다**의 이 대변인은 이어서 설명했다: **예수**가 체포된다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최선이라는 것을 **유다**가 인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그릇된 운동에 참여해 온 것을 후회한다는 증거로서, 또 이제 **모세**의 가르침으로 진지하게 돌아온다는 증명으로서, **예수**를 체포하라는 명을 받은 지휘관과 주선할 수 있는 자로 자청하려고 그가 **산헤드린**으로 왔다. 이렇게 하면, **예수**를 조용히 감금할 수 있고, 이처럼 민중을 소란하게 만드는 어떤 위험이나 또는 유월절이 지나기까지 그의 체포를 연기할 필요를 피한다.

177:4.7 (1925.4) 사촌(四寸)이 말을 마치자, 그는 **유다**를 인사시켰고, **유다**는 앞으로 대사제 가까이 걸어가서 말했다: “내 사촌이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하리이다. 그러나 이 수고의 대가로 나에게 무엇을 기꺼이 주시겠나이까?” 모질고 자만심이 대단한 **가야바**의 얼굴에 비쳤던, 경멸하고, 아니 메스꺼워하는 그 얼굴빛을 **유다**는 헤아리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마음은 자기 영광에, 그리고 자찬(自讚)하는 만족감을 몹시 바라는 생각에 너무 팔려 있었다.

177:4.8 (1926.1) 그러자 **가야바**는 배반자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유다**야, 너는 경비대의 지휘관에게 가서, 네 주를 우리에게 오늘 밤이나 내일 밤에 데려오도록 그 장교와 주선하여라. 네가 그를 우리 손에 넘기고 나서, 너는 이렇게 수고한 데 대하여 보상을 받을지니라.” 이 말을 듣자, **유다**는 주사제와 권력자들이 있는 앞에서 나가서, 성전 경비원들의 지휘관과 함께 **예수**를 어떤 방법으로 체포할까 의논했다. **유다**는 **예수**가 그때 캠프에서 자리를 비웠음을 알았고 그날 저녁에 언제 그가 돌아올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날 (목요일) 저녁에,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모두

밤을 지내려고 물러간 뒤에 **예수**를 체포하자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보았다.

177:4.9 (1926.2) **유다**는 여러 날 동안 맛보지 못했던 위엄과 영광을 누릴 생각에 황홀한 채로 캠프에 있는 동료들에게 돌아왔다. 그는 언젠가 새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 편에 뛰어들었다. 전에 예상했던 것과 같은 새 왕국이 없으리라는 것을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러나 예상했던 새 나라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여 실망한 것을 옛 체제에서 명예와 보상을 즉시 얻는 일과 바꾸도록 그렇게 현명했던 것이 기뻐다. 그는 이제 이 옛 체제가 살아남으리라고 믿었고, 옛 체제가 **예수**와 그가 대표하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 확신했다. 의식(意識)하면서 의도한 마지막 동기를 볼 때, **유다**가 **예수**를 저버린 것은 이기적인 도망자의 비겁한 행위였고, 그가 오로지 생각한 것은 그의 행위가 주와 옛 동료들에게 무슨 결과를 가져오든 상관없이, 자신의 안전과 영광을 얻는 것이었다.

177:4.10 (1926.3) 그러나 늘 바로 그랬다. **유다**는 머리 속에 점점 쌓이는 고의적이고 끈질기고, 이기적이고 복수심 가득한 이 의식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고, 복수하고 불충하려는 욕망, 사람을 미워하는 이 악한 욕망을 가슴 속에 품고 있었다. 다른 사도들을 사랑하고 믿은 것처럼 **예수**는 **유다**를 사랑하고 믿었지만, **유다**는 그에 보답하여 충실하게 신뢰하는 태도를 기르고 진심으로 사랑함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리고 일단 자아(自我)의 추구에 온통 집착하며, 음침하고 오랫동안 억눌렀던 복수심이 포부를 극도로 자극했을 때, 그 포부는 얼마나 위험하게 될 수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들의 일생에서 실망은 얼마나 사람을 짓밟는가! 이들은 세월 속에 그림자 같고 하루살이 같은 흥미거리엔 눈독을 들이면서, 신성한 가치와 참된 영적 실체들이 있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구한 업적을 얻는, 더 높고 참다운 성취를, 눈이

멀어 바라보지 못한다. **유다**는 머리 속에서 세상의 명예를 몹시 바랐고, 진심으로 차츰 이 욕구에 빠지게 되었다. 다른 사도들도 머리 속에서 마찬가지로 바로 이 세상의 명예를 몹시 바랐지만,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했고, 그가 그들에게 가르친 진실을 사랑하기를 배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177:4.11 (1926.4) 이때 **유다**는 깨닫지 못했지만, **헤롯이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벤 뒤로 늘, **유다**는 잠재 의식에 **예수**를 비판하는 사람이 되었다. 가슴 속 깊숙이, **유다**는 **예수**가 **요한**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늘 분하게 여겼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 전에 **유다**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움이라는 옷을 입혀 자기 혼 속에 **유다**가 쌓아 두었던 인간적 분개심과 가슴 아픈 실망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어렴풋이 의식하는 머리 속에서 자리를 잘 잡았으며, 이것은 그가 형제들의 지지하는 영향을 일단 감히 벗어나고, 또한 동시에 **예수**의 적들의 영리한 암시와 미묘한 비웃음에 노출되었을 때 솟아나와서 그를 삼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다**가 하늘 높이 희망을 띄우고 **예수**가 이를 산산 조각내는 무슨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마다, **유다**의 마음 속에 모질게 분개했던 상처가 언제나 남아 있었다. 이 상처들이 늘어나자, 너무나 자주 상처 입은 그 마음은, 좋은 뜻을 가졌어도 비겁하고 자기 중심인 인물에게 이 씁쓸한 체험을 안겨준 사람에 대하여 모든 참 애정을 금방 잃어버렸다. **유다**는 깨닫지 못했어도, 그는 비겁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쉽게 손 닿는 곳에 있는 듯 보였을 때, **예수**가 비겁하여 아주 흔히 권력이나 영광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고 **유다**는 언제나 **예수**를 탓하고 싶어 했다. 어떻게 한때는 진정했던 사랑조차, 실망과 질투와 오래 계속된 분개심을 통해서, 결국 실제로 미움으로 바뀔 수 있는가 필사 인간은 누구나 잘 안다.

177:4.12 (1927.1) 마침내 주사제와 장로들은 몇 시간 동안 편안히 숨을 쉴 수 있었다. **예수**를 대중 앞에서 잡아들이지 않아도 되었고, 배신하는 동조자로 **유다**를 확보한 것은 과거에 아주 여러 번 했던 것처럼, **예수**가 그들의 관할 구역에서 달아나지 않을 것을 보장했다.

5. 마지막 친교 시간

177:5.1 (1927.2) 수요일이었으니까 캠프에서 이날 저녁은 친교 시간이었다. 주는 풀이 죽은 사도들을 북돋아주려고 애썼지만, 거의 불가능했다. 뒤숭숭하고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모두가 비로소 깨달았다. 파란 많고 사랑으로 사귀었던 여러 해를 주가 하나하나 이야기했을 때도 그들은 명랑해질 수 없었다. **예수**는 모든 사도의 가족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물었고, **다윗 세베대**를 향하여 둘러보며, 누가 자기 어머니나 막내 누이나 또는 자기 집안의 다른 식구로부터 요즈음에 소식을 들었는가 물었다. **다윗**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자기 발을 내려다보았다. 대답하기가 두려웠다.

177:5.2 (1927.3) 이때는 **예수**가 추종자들에게 군중의 지지(支持)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계기였다. 여러 번 큰 무리의 사람들이 열심히 그들을 따라다니다가, 다음에 똑같은 열심으로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들이 예전에 믿고 생활하던 길로 돌아갔을 때 **갈릴리**에서 겪었던 체험을 주는 다시 이야기했다. 다음에 말했다: “그래서 너희는 성전에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가르침을 믿는 듯이 보이던 큰 군중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느니라. 이 군중은 진실을 듣고 머리 속에서 겉으로만 믿지만, 거의 아무도 진실의 말씀이 살아 있는 뿌리를 박아 가슴 속에 들어가게 두지 않느니라. 오직 머리로만 복음을 알고,

마음 속에서 복음을 맛보지 않은 자는 정말 어려움이 닥칠 때 지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느니라. **유대인** 권력자들이 **사람의 아들을** 죽이겠다고 의견을 모았을 때, 그들이 한 마음으로 공격할 때, 너희는 군중이 절망에 빠져 달아나든지, 아니면 미치고 눈먼 이 권력자들이 복음의 진실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동안 말없이 놀라서 구경만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다음에 역경과 박해가 너희에게 닥칠 때, 너희가 보기에 진실을 사랑한다는 또 다른 사람들은 흩어지고, 더러는 복음을 부인하고 너희를 저버릴 것이라. 우리와 아주 가까웠던 어떤 사람들은 이미 저버리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이제 닥친 시절에 대비하여 너희는 오늘 쉬었느니라. 그러므로 바로 앞에 닥친 며칠을 위하여 너희가 힘을 얻도록 내일은 경계하고 기도하라.”

177:5.3 (1927.4) 캠프의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긴장의 빛이 가득했다. 말 없는 사자들이 오고 갔고, 오직 **다윗 세베대**와 의사(意思)를 통하였다. 그날 저녁이 지나기 전에, 더러는 **나사로**가 황급히 **베다니**에서 달아난 것을 알았다. 캠프로 돌아온 뒤에, 주의 곁에서 하루 종일 보냈는데도, **요한 마가**는 불길하게 말이 없었다. 그가 말하게끔 설득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예수**가 그에게 입을 다물라고 이른 것을 가리켰다.

177:5.4 (1928.1) 명랑하고 보기 드물게 친근한 주의 태도조차 그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끔찍한 고립의 시절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음을 모두가 느꼈고, 그런 일이 갑자기 와르르하며 피할 수 없이 무섭게 찾아오려 하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인가 다가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아무도 그 시험에 부닥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지 않았다. 주는 하루 종일 떠나 있었고, 그들은 주가 계시지 않아 엄청나게 서운했다.

177:5.5 (1928.2) 이 수요일 저녁은 주가 돌아가시는 바로 그 실제 시각까지 그들의 영적 지위에서 밑바닥을 기록했다. 비록 이튿날은 비극의 금요일이 하루가 더 가깝기는 했어도, 그래도 주는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은 초조한 시간을 더 품위 있게 견디었다.

177:5.6 (1928.3) 바로 한밤이 되기 전에, 땅에서 그가 택한 가족과 함께 폭 잠잘 마지막 밤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밤 동안 그들을 해산하면서 그는 말했다: “형제들아, 잠자러 가라,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우리가 아들인 것을 아는 기쁨을 맛볼 날이 하루 더 있느니라.”

[172]: 177:4.1 **로마** 시대에 보통 사제는 주사제(chief priests)로 불렸고, 이들 중에 정치적으로 한 사람이 대사제(high priest)로 임명되었다. 사제들은 24 가족의 출신이었다고 한다.
